

디자인 인재 조기 발굴: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창의력과 재능을 겸비한 디자인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차세대 디자인 스타로 육성’하고자 시작된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는 1993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1994년 첫 행사를 개최했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산업디자인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고자 기획했지만, 기존 디자인 공모전이나 전시와는 대상이나 성격이 사뭇 달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공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관건은 일선 초, 중, 고등학교와의 네트워킹이었다. 행사를 준비하며 전람회에 대한 가능성을 설문 조사해 보니, 학교 교사들조차 산업디자인에 대해 막연히 이해만 할 뿐 개념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도 행사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이에 KIDP는 대학 교수, 교사, 교육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운영위원회를 통해 산업디자인과 교과과정의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교육부장관상 등 교육부의 후원을 청사시키며 일선 학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언론사와 공동 주최를 모색하면서 일선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1



2



3

- 1 1999년 제6회 《초·중·고등학생산업디자인전람회》 개막식
- 2 2002년 제9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관람
- 3 2005년 제12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개막식

어려운 준비 과정을 거친 후 1994년 6월 1일 개최한 《제1회 전국 중·고등학생 산업디자인공모전》은 동양권에서는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전람회였다. 총 1,157점이 출품되었고 41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뒤이어 9월에 열린 제1회 전국 초등학생 산업디자인공모전에는 3,221점이 출품되어 79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우려와 달리 공모전에는 기대보다 높은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며, 두 행사를 합쳐 총 7만 4,533명이 전시회를 찾았다. 처음에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분리해 행사를 열었지만, 질적 수준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여름방학 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동시에 개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명칭도 공모전에서 전람회로 바꾸었다.

이듬해 5,457점이 출품된 이 행사는 이후 해가 갈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며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2009년 초에 1회부터 15회까지 수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13명 가운데 158명(74%)이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일 정도로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는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좋은 결실을 맺으며 KIDP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세계 속의 디자인 강국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기초 단계라 할 수 있는 미래의 주역을 키우고, 디자인 영재 조기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6회를 맞이한 2019년은 ‘나이에 상관없이 초·중·고등학교 재(휴)학 중인 사람’과 ‘8~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 시각/정보 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공간/환경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다. 수상자는 KIDP 어워드 통합 멘토링에 참여해 역대 수상자들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갖고, 해외 주요 디자인 거점을 찾아 디자인 선진 사례를 배우는 ‘해외 디자인 견학’,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박람회인 《디자인코리아 페스티벌 2019》에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를 지원받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



2018년 제25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시상식